

#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선호

고3 때 봤던 수능에서 저는 여태까지 본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점수가 나온 성적표를 받아 들고, 수시에 넣은 6개 학교를 모두 떨어지는 실패를 겪으면서, 저는 결국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고,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수 생활은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고, 이미 대학에 진학한 다른 친구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종로학원에서 보낸 1년의 재수 생활은 저에게 있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지 성적 향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는 기간 동안 지칠 때, 힘들 때, 그런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저의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1. 작은 일에 크게 마음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재수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작은 일에 마음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꽤 자주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학원 모의고사도 있고, 교육청이나 평가원 시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시험을 치는 것은 현재의 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표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런 시험 한 번 한 번마다 점수에 연연하고 상처받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 한 번뿐입니다. 그 전에 치는 시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우리에게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지침일 뿐입니다. 시험 후에 열심히 봐야 할 것은 성적표가 아니라 시험지와 해설지인 것입니다.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 자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공부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험들에서는 틀린 문제를 통해 도움을 얻고, 점수나 등수는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2. 학원 스케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반은 7시 반까지 등교하는 것을 약속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항상 그 시간을 지켜 등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등원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머리를 깨우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수업 시간 동안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실제 수능 시간과 비슷한 수업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학원처럼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할 때 쉬고 원할 때 공부한다면, 실제 수능은 그런 재량이 없기 때문에 따로 컨디션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 스케줄에 맞춰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리듬이 잘 맞춰지기 때문에 수능 전날까지도 최대한의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 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다.

## 3.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침에 조레 전 10분에서 20분,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전 15분, 양치하며 줄을 서 있는 5분에서 10분 같은 시간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사자성어를 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막상 긴 시간이 났을 때 쪼개서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학기 초반부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학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분명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점심시간에 보는 핵심체크고사 SDLP는 자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때 오답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고 쌓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답은 한 번 확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고 또 봐서 확실히 머릿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의고사와 SDLP 모두 틀린 문제를 오려 노트에 붙이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적고, 올바른 풀이를 적어놓은 다음 자투리 시간에 자주 확인하고, 다시 풀어보는 것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틀린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실수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인해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 자주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께 직접 여쭙어보고 대면해서 설명을 들으면 그 문제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꾸만 틀리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꼭 선생님께 찾아가서 여쭙보았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그 용기와 의지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분명히 그 노력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